

I. 주간 경제 동향

1. 경제 개관

- (총괄) 원/달러 환율 약보합세, 지표 금리 7%대로 급락, 주가는 상승세 지속
- (해외차입여건 개선) 국제금융시장 불안 진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에 힘입어 외평채 유통수익률이 발행 당시보다 낮아지는 등 차입여건 개선
- (외환시장) 정부의 口頭 介入으로 일시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강세 및 달러 공급 우위의 지속으로 1,200원대로 재하락
- (자금시장) 당국의 금리 인하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단기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임. 이에 따라 금리 급락세가 지속되어 지표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7%대 진입
- (주식시장) 엔화 강세 지속, 금리 급락 등의 호재로 인해 종합주가지수는 550 포인트선을 돌파함

□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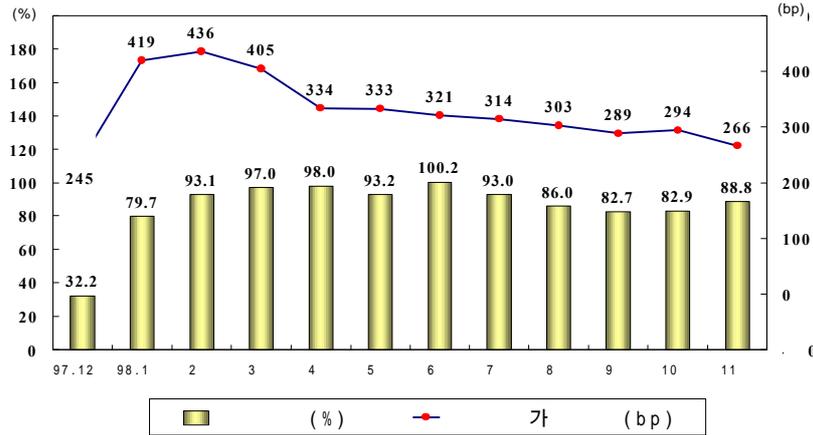
- (금융지표 동향) 원/달러 환율 약보합세, 지표 금리 7%대로 급락, 주가는 상승세 지속
 - (해외차입 여건 개선) 11월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 (신용경색 지속) 국내의 신용경색 해소에는 향후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

□ 해외차입여건 개선

- (해외차입여건 개선) 국제금융시장 불안 진정과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에 힘입어 11월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 (금융기관 단기차입) 借換(roll-over)比率이 다시 상승하고 차입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일부 우량은행에 대해 Credit Line의 신규 개설 또는 한도 확대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차환비율은 11월 중 88.8%로 회복되어 10월 대비 5.9%p 상승, 국제기준금리(LIBOR 기준)에 가산되는 금리는 11월 중 2.66%로 10월 대비 0.28%p 하락
 - (금융기관 장기차입)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Syndicated Loan이나 ABS(자산담보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이 확정되거나 추진중에 있음. 하나은행은 0.5억 달러 규모의 차관단 여신(LIBOR+ 2.5%, 총비용 기준)

3.5% 내외, 3년 만기) 도입 계약 체결, 수출입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3억 달러의 ABS(LIBOR+1.5%, 총비용 기준시 1.9% 내외, 최장 5년 만기)을 발행키로 주간사 기관인 UBS와 합의, 국민은행은 차관단 여신(0.5억 달러, LIBOR+2.5%, 총비용 기준시 3.7% 내외, 3년 만기) 도입이 거의 성사 단계

< 개별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 차입시 가산금리 추이 >



주 : 7대 시중은행 기준

· (한국물 채권 유통수익률) 외평채 등 한국물 채권의 가산금리(美 국채금리 기준)도 9월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지난 8월말 10.1%까지 상승하였던 10년 만기 외평채 가산금리는 12월 7일 현재 4.29%로 지난 7월말 수준 이하로 하락. 유통수익률 기준으로는 발행 당시(98년 4월 8일)의 9.08% 보다 낮은 8.96%를 기록

< 한국물 채권의 가산금리¹⁾ 추이 (J.P. Morgan 자료) >

(단위 : bp)

구분 (만기)	98.4.8	6말	7말	8말	9말	10말	11말	12.7
외평채 (5년)	345 (8.95)	476 (10.21)	399 (9.50)	1,010 (14.89)	774 (11.96)	578 (10.02)	433 (8.82)	410 (8.55)
(10년)	355 (9.08)	482 (10.27)	435 (9.85)	1,010 (15.06)	725 (11.66)	552 (10.13)	446 (9.19)	429 (8.96)
산금채 (5년)	350	560	490	1,030	785	675	490	490
<참 고>								
태 국 (2007)	295	435	460	970	675	575	350	365
인 니 (2006)	590	860	791	2,100	1895	1,351	730	995
필리핀 (2006)	327	414	402	1,011	760	552	444	437
T-Note 10년물(%)	5.53	5.45	5.50	4.96	4.41	4.61	4.73	4.67

주 : 1) 美 정부채 기준 가산금리(Spread), ()내는 유통수익률(%)

-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이 중요) 신용등급의 상향조정 없이는 해외차입여건 개선에 한계
 - 당분간 대내외 여건의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차입여건의 개선도 지속될 전망이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음
 - 러시아 및 브라질 사태, 기업 구조조정의 실질적 마무리, 경기회복 여부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른 시일 내에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을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움

□ 외환시장

- (환율 약보합세)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200원 대 유지
 - 12월 14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04.0원을 기록
 - 지난 12월 7일 1,208.0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개입 가능성 시사에 따라 12월 8일 1,217.0원으로 급등하였음
 - 그러나 8일 이후 달러 공급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입이 가시화되지 않음으로써 원/달러 환율이 재차 하락세를 보임
 - 엔화 강세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이 지속되어 원/달러 환율은 다시 1,200원대까지 하락함. 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으로 1,200원대가 무너지지는 않았음

□ 자금시장

- (지표 금리 급락) 회사채 수익률 7%대로 하락
 - 12월 14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7.80%를 기록함
 - 당국의 금리인하 정책의 가시화로 단기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금리 급락세가 지속되어 연일 사상 최저치 수준을 갱신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이 8일 이후 재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원화 유동성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확산시켜 금리 하락을 뒷받침함
 - CD 및 CP 유통수익률은 7%대에 머무름

- (신용경색 지속) 신용경색의 부분적인 해소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본격적으로 해소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기업의 금융 담당자 174명을 대상으로 한 전경련의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여 최근 금융시장의 상황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48.9%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그러나 36.2%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신용경색이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됨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종사자의 54.2%, 중소기업 종사자의 42.5%가 신용경색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답변,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신용경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금의 신용경색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의 신용경색이 앞으로 6개월~1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49.4%, 1~2년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도 27.6%에 달하였음

□ 주식시장

- (주가 상승세 지속) 종합주가지수 550포인트 돌파
 - 12월 14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559.30 포인트를 기록
 - 엔화 강세의 지속, 금리의 지속적 하락,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발표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주가 상승세가 지속됨
 -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주가 상승세를 꺾지는 못함
 - 주가가 실물보다 선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물경제의 변화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빠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거품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대세로 볼 때 향후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은 분명하지만, 거품의 정도에 따라 조정국면의 강도와 낙폭이 달라질 것임

(채 창 균 ckche@hri.co.kr ☎724-4031)